광주·전남 초중고생 6천여명…1주일새 10배

눈병 급속 확산 학교 '초비상'

학생들 학교 안가려 고의로 서로 옮겨

최근 1주일 사이 광주·전남지역 학생 6천여 명이 일명 '아폴로 눈병'으로 알려진 '급성출혈성결막염'에 걸리는 등 유행성 눈병이 급속히 확산돼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시교육청은 7일 현재 송정서 등 14개 초등학교 학생 349명, 봉산 등 38개 중학교 학생 3천204명, 보문 등 26개 고등학교 학생 1천439명 등 모두 4천992명의 초·중·고생이 눈병에 걸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까지만 해도 중학생 428명, 고등학생 66명 등 모두 494명이 눈병에 감염됐으나, 불과 1주일 사이 환자 수가 10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이 중 초등학생 116명, 중학생 1천298명, 고등학생 500명 등 1천914명은 병원 치료 등을 통해 눈병이 나았으나, 초등학생 233명, 중학생 1천906명, 고등학생 939명 등 3천78명은 아직 치료 중이다.

전남도 이날 현재 1천313명의 초·중·고생이 눈병에 걸리는 등 최근 1주일 사이 환자 수가 10배 늘었다.

이 중 11개 초등학교 학생 44명, 16개 중학교 학생 408명, 15개 고등학교 학생 480명 등 932명은 현재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처럼 눈병에 걸린 학생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 눈병에 걸린 학생의 경우 완치될 때까지 5~7일가량 등교 중단 조치를 시키기 때문에 일부 철없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일부러 환자의 손으로 눈을 비벼 눈병을 옮겨 받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눈병을 앓고 있는 학생 중 일부는 수백 원에서 수천 원을 받고 동료 학생에게 눈병을 옮겨주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는 눈병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등교 중단 조치를 하지 않고 별도의 특별실에 격리조치한 뒤 자율학습을 시키고 있다.

광주 아이안과 윤태중원장은 "요즘 유행하는 눈병은 구결막(검은 동자위 옆 흰자위)에 출혈이 나타나는 아폴로 눈병으로, '눈에 생기는 독감'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염성이 강하고 특효약도 없다"며 "눈곱이나 이물질을 닦은 휴지는 반드시 휴지통에 버리고, 베개·이불·수건·치약·전화기 등 환자와 접촉하는 모든 생활 물품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6일 현재 전국 480개 초·중·고교에서 1만8천203명의 환자가 발생, 이 중 4천950명은 완치됐고 474개교 1만3천253명은 치료를 받고 있다.

/최재호·황태종기자 lion@kwangju.co.kr

김태희 비방 '악플러' 11명 입건

인터넷 댓글을 통해 탤런트 김태희(여·26·사진)씨에 대한 악성루머를 퍼뜨린 네티즌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7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실린 기사에 미확인 내용의 댓글을 달아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대학원생 최모(여·29)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올해 6월 모 포털사이트 뉴스에 실린 '김태희 한 달 간 미국으로 어학연수' 기사에 '모 재벌 2세와 결혼해 신혼여행을 갔다' '임신한 뒤 낙태했다' 등 인신공격성 댓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에는 대학생이 많았고 공익요원, 디자이너, 운전사 등도 있었다.

대부분 10~30대 젊은층인 이들은 다른 네티즌이 올린 댓글을 읽고 비슷한 내용의 댓글을 달거나 버스에서 우연히 여고생들의 대화를 듣고 그대로 옮겼으며, 김씨 관련 소문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나 심심풀이로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대부분 악성 댓글을 올리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모른 채 무심코 글을 올렸다. 경찰에 적발된 뒤 경솔한 행동이었다고 후회했지만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는 김태희씨가 올해 6월 소속사를 통해 네티즌 3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따라 이뤄졌으며 23명은 사안이 경미해 고소가 취하됐다.

경찰은 악성 댓글을 자주 게시하는 일부 네티즌에 대해 포털사이트와 협력해 이용 제한 등 제재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

전경태 전 구례군수 테러 범인

"8년 쌓인 원한 때문"

전경태 전 군수 피습사건을 수사 중인 구례경찰은 7일 "범인 이씨를 조사한 결과, 이씨가 8년 전부터 쌓인 원한 때문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종호 수사과장은 "이씨가 지난 1998년 전 군수에게 폭행을 당했고, 이후로도 무시를 당하자 앙심을 품었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처럼 '배후 세력'이 있는 정황은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씨가 장모(53)씨의 차에 불을 지른 이유는 3~4년 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산을 파는 과정에서 생긴 개인적인 원한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씨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나는) 지난 2002년 선거 당시 전 군수의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고, 전 군수와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을 뿐 정치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이씨로부터 산을 산 것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씨를 도와주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동구청 '웰 앙상블' 첫 공연 광주시 동구청 공무원 악단인 '웰 앙상블'(Well Ensemble)이 7일 오후 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첫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3월 만들어진 '웰 앙상블'에는 단장인 박형철 보건소장을 비롯, 35명의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원숭이 탈출 '소동'

순천서 3마리 등산객 공격

순천의 한 레스토랑에서 사육되던 원숭이들이 우리를 탈출해 24시간 이상 난동을 부리다 소방관들에게 붙잡혔다.

7일 순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0시10분께 순천시 석현동 S레스토랑에서 사육되던 '일본원숭이' 3마리가 녹슨 철제 우리를 부수고 탈출했다. 이 원숭이들은 암·수 한 쌍(키 1m20cm)과 새끼 한마리였다.

새끼는 곧바로 붙잡혔지만, 어미 두 마리는 인근 야산으로 도망친뒤 등산객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소방관들은 그물총까지 동원한 끝에 다음날 오전 11시30분께에야 모두 포획할 수 있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부도 면하려 "위조 어음" 허위 고소

광주지검, 20명 적발

수사기관에 어음이 위조됐다는 허위 고소장만 내면 지급정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어음·수표 거래 관련 무고사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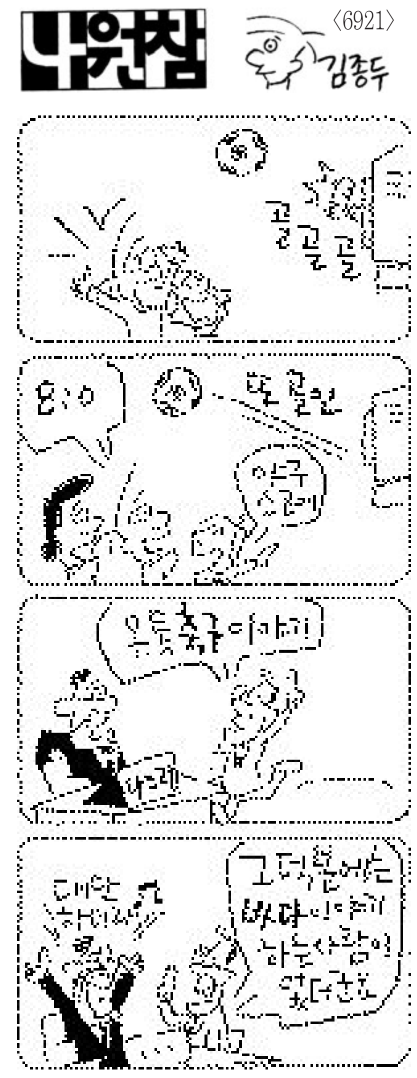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위재민)는 7일 자신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위·변조됐다며 거짓 고소한 협의(무고)로 유모(48)씨와 이모(3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건축물 자재상을 경영하는 유씨는 2001년 9월부터 2004년 1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액면금 합계 1억3천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4장을 발행한 뒤 어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이자 수사기관에 약속어음이 위조됐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부도를 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도 2002년 7월부터 작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발행한 액면금 3천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약속어음이 위조됐다며 검찰에 거짓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 부당하게 부도를 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약속어음이 위조된 경우 별도의 사고신고 담보금이 없더라도 수사기관에 고소장만 제출하면 지급정지를 할 수 있고 거래정지 처분 등도 면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부도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9억 횡령한 공무원은 '수집광'

쌍나팔

○…국고에서 2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건설교통부 6급 공무원 최모(32))씨가 국내외 희귀화폐와 만화책, 비디오테이프를 모으는 '수집광'인 것으로 드러나 실소(失笑).

○…7일 최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최씨는 횡령한 돈 중 15억원을 'e베이' '옥션' 등 경매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희귀 화폐 구입에 사용했다는 것.

○…최씨는 화폐뿐 아니라 수 천만원 상당의 만화책과 비디오테이프도 구입했으며, 경기도 용인시에 대지 150평·건평 60평 규모 전원주택을 2억5천만원에 사들인 뒤 방 6개 중 3개를 소장품으로 가득 채웠다고.

○…경찰 관계자는 "아버지와 어머니, 실업자인 형 부부와 함께 살던 최씨가 횡령으로 거액을 챙긴 후 그동안의 궁핍한 생활을 보상받겠다는 심리에서 호화생활을 한 것 같다"면서 "압수품을 맨손으로 만지다가 흠집이 나면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우리도 매우 조심했다"고 한마디. /연합뉴스